

한청(약칭) 이적성 검토의견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관련 문건분석 -

2002. 3

본 청은 김형에서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조국통일기본법》(이하 통일법) 및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의 지지 및 후원에 관한 문건을 분석한 결과, 북한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 아님. 북한은 우리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연방제(연방제와 연방제 질서)가 연방제통일방안을 채택하여 남북한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데 반하여, 김형은 북한측 주장과 수동적으로 합의한 것임.

분석자: 유 동 열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I. 「한청」 강령·규약의 이적성

(1) 연방제 통일강령을 표방

■ 한청은 동 단체의 활동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강령에서 '연방제 통일강령'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인 국가연합제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통일안을 수용동조하여 정당화하고 지지선전하는 것임.

"우리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여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한청 제1기, 제2기 강령 6항, 2002.2.23)

- 한청은 강령에서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원칙)과 《6.15 공동선언》의 지지 이행의 연장선에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남북이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한 것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의 절충이지, 일방적으로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 아님.

정당화하고 있음(다음장 사례 참고)

- 북한은 우리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6.15 공동선언 2항' (연합제와 연방제 절충)이 연방제통일을 남북이 합의한 것이라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한청의 강령은 북한측 주장을 수용동조하고 있는 것임.

■ 북한주장 규약 제2조(목차)에서 이념에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을 조직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원경의 자주 민주 통일노선은 (사례1) 2000년 8월 15일 '북남 공동선언 지지환영 및 실천을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단체 연합대회시 결의문 2항

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이다...이것은 우리민족이 55년간의 '통일운동' 과정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연방제 통일로 나가는 역사적인 이정표로 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에서 통일논의를 활발히 벌여 온 민족의 의사를 모아 나감으로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사례2) 2002년 2월 5일자 평양방송 논선 '민족자주통일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며...중략... 연방제통일방안이야말로 민족의 의사와 이익,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최선의 통일의 방도로 되는 것이다...중략... 6.15 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연방제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 한청은 강령뿐만 아니라 한청 창립대회 자료집, 1-2기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 등에서 연방제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더 나아가 한청의 장인 전상봉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실천과제' 이라는 기고문과 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6.15 공동선언이 연방제통일을 위한 것이라곤 주장할 경우 수록하며 유일판된 북한 연방제통일을 정당화하고 있음(타문장 사용, 착각을 선동하고 있음. 이는 현정부를 부정하는 사색으로 북한의 대남선동책도 역효과를 감아하는 수장임)

(2) 자주 민주 통일노선 채택

김대중정권은 국가통일정책을 수립할 때 남과 북의 민족의 생존을 계국
■ 한청은 규약 제2조(목적)에서, 위촉받은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을 조직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한청의 자주 민주 통일노선은 동 단체 발행문건의 성향으로 보아 북한의 대남투쟁과제인 자주민주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것임.

제2조(목적) 우리단체는 다음사항을 위하여 노력한다”(한청 규약 제2조)
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한청 규약 제2조)

- 자주 민주 통일이란 북한이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설정한 대남 투쟁 3대 과제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민전」의 투쟁강령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자주리 반미자주화투쟁을 민주리 반파쇼민주화투쟁을 통일이란 연방제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하는 것임.

- 한청이 주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노선이 북한의 대남투쟁을 수용한 것이라는 근거는 다음장의 예시에서 보듯이 북한의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민권민주투쟁으로 표현), 연방제통일투쟁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수용동조하고 있다는 것임.

II. 주요 조직문건의 이적성

한청이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용동조하여 주장하는 한청의 주장
(1) **현정권을 반민중정권으로 규정**
하는 것임.

■ **현정권을 현 김대중정권을 반민주, 반민중 정권으로 규정하며, 정, 집권을 빼앗아 반민주, 반민중 정권을 선동하고 있음의 의는** 이현정부를 규정하는 지극히 온, 북한이 대남선동과도 다름없을 2개 이하는 주장임 (한청 규약 제2조, 18면, 2002)

“ 김대중정권은 국가주권을 헐값에 팔아 팔아 팔아 민중의 생존권을 제국주의 손에 넘겨주는 반민중적, 반민중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은 끝을 모르고 추락할수형편에 놓여있으며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민주민권은 급격히 약화되고 한국사회의 적민지성은 심화되고 있다...중략...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경제정책은 극소수 가진자들을 제

상이 되고 있다" (한청 창립대의원총회 창립대회자료집, 4면, 2001.2)

"대중투쟁사업... 김대중정권의 외세공조반대투쟁..." (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 59면, 2002)

"민생파탄, 사대매국정권 김대중정권 반대한다" (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 2002.2, 79면)

(2) 자주 민주 통일노선 채택

■ 한청은 출범선언문 등에서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와 목표인 (자주-반미자주화투쟁, 민주-반파쇼민주화투쟁, 통일-연방제 조국통일투쟁)을 동 단체가 전개하는 변혁운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 원칙 아래 투쟁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한청이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용동조하여 수행하는 단체임을 자인하는 것임.

자주 민주 통일노선 채택은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 민족은 이념 분단의 역사에 중지부를 찍고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01년은 청년운동사에서 잊지 못할 이정표를 세운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중략. 한청의 출범은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만을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기적의 순간을 당당히 선포하는 자리였다. (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 18면, 2002)

"우리들의 조직인 한청은 자주 민주 통일위, 이념적 공백선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완수하는데 그 정치적, 조직적 지향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강조합니다. 자주민주통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숭고한 원칙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한청 창립대의원총회자료집, 4면, 2001면)

(3) 연방제 통일 실현 선동

■ 한청은 강령뿐만 아니라 각종 문건에서 일관되게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6.15공동선언이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하고 있음. 이는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인 구국연합개안을 부정하고 부한이 토인방안이 연방제통일론을 수용동조하여 이의 수행을 선동하는 것임.

“ 전국연합과 범민련을 중심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한청 창립선언문 中, 2001.2.10)

“ 분명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보검이다...중략... 휘날리는 우리의 깃발 당당하고 자랑스레 움켜쥐고 연방통일조국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을 한국청년의 이름으로 결의한다”(한국청년조국통일 결의대회 결의문, 2001.8.15)

“ 지난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민족은 마침내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중략...이제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깃발을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천군에서 앞장설 것이다. 민족리위해 풀해볼 안목통일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통일의 대로를 장식하길 연방통일의 추적이 앞설 것이다”(한청 6.15공동선언 이행의 실천 계획결의문, 2001.2.10) 2차 정기대외원 중의 6.15공동선언 이행의 실천 계획결의문

“ ...이와 같은 이유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방침에 의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통일의 나침반은 분단고착의 연합제안과 통일지향의 연방제안과 화해할 수 없는 간극속에서 연방제 통일이라는 정방향을 가르키고 있는 것이다”(전상봉 한청의장,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실천과제, 인천통일연대 홈페이지)

(4) 북한의 대남노선을 투쟁사업으로 설정

■ 한청은 창립선언문, 제1기 사업방향, 제2기 사업방향 등에서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부시방한 저지투쟁,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반대, 미군의 학살만행 진상규명, MD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범민련-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주적론 철회” 등을 설정하고, 이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음. 이는 한청이 북한노선에 동조하여 이를 정당화하고 고무 선동하는 단체임을 보여주는 것임.

“ 2002년 사업계획 대중투쟁사업 □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투쟁 . 핵심적으로 1) 2) 아리랑축전 참가투쟁... 3) 미국의 간섭과 긴장 고조, 분열책동 저지투쟁,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에 대한 단적 규탄투쟁을 통해 내외의 반통일세력을 분쇄해 간다. * 이밖에 1) 김대중정권의 외세공조반대투쟁 2) 주적론 철회투쟁 3)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 반미자주화투쟁 * 핵심적으로 1) 합동군사훈련 저지투쟁, 무기수입반대투쟁을 전개하며 반전평화 반미투쟁, 대북 적대정책 반대투쟁의 수위를 높인다... □ 민주민원투쟁 * 핵심적으로 1) 반통일, 반헌법, 반민주,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2) 범민련,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투쟁을 전개한다. 이밖에 양심수석방투쟁... □ 양심수 석방투쟁을 전개한다 (한청 2기 정기대의원 총회 출판물 자료집, 2002.2, 59면) ... □ 국가보안법을던수내선 선의 사회정치적 분위기에 맞추어 유신체제를 전산화시킨다. 한총련과 민주민정의 이적 규정 철회투쟁을 전개한다. * 이밖에 양심수 석방투쟁을 전개한다. 한청의 2002년 투쟁사업계획은 위와 같이 양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설정하고 있음. ”

○ 자주노선: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자주화투쟁 선동

“ 우리는 각계각층의 모든 투쟁이 자주의 방향으로 미국반대투쟁으

로 나아가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대북외교정책, 개성투쟁,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제국주의의 경제침탈을 막아내는 투쟁을 광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한청 창립대의원총회 창립대회 자료집, 34년, 2001)

“우리는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한반도의 대결을 조장하는 미국의 모든 내선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군기지의 반환과 주한미군을 철수 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한청, '대북강경정책을 내세우고 MD정책을 지지강요하는 미국무장관 콜린파월의 방한을 반대한다', 2001.7.27)

“악의 축 미국대통령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한청, 부시방한반대 투쟁 교양참고자료집, 2002)

○ 민주노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이 흔들리면 분열밖에 없다는 지난날의 교훈에 기초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땅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양집수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한청 창립선언문 중, 2001.2.10)
“우리는 2002년 1월 22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통일선언서에서 제안한 3대 제안' 그대로 6.15 공동선언이 미 사문화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을 민족대단결의 사회정치적 투쟁의 결과로 완전히 철폐한다. 한총련과 범민련의 이적규정을 철폐하는 것과 더불어 양집수 석방과 정치수해해제 과제를 결합하여 자유로운 정치사상의 활동보장과 기본적인 인권을 되찾는다”(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 26면, 2002.2)면)

(5) 북한체제 옹호 미화

■ 한청은 '강성대국 건설-선군정치노선' 과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고수' 등 북한 김정일정권의 통치노선과 시책을 옹호미화하고 있음. 이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정당화하고 고무찬양하는 것임.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결속짓고 선군정치의 전략화와 강성대국의 건설을 향하고 있는 이북의 자주역량이 견제하고 있다...중략...북의 반제자주 사회주의역량 - 자본주의대 사회주의의 대결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권의 동반 몰락이후,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를 완성시켜나가는 국가단위이며, 전세계적인 반제 투쟁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반제기치를 선명히 하며 미국과 각축을 전개하는 유일한 단위이다 - 특히 선군정치노선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완강히 전개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결속지었다" (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 2002.2, 55-56면)

(6) 기타 (한청의 주장)

■ 북한이 2002년 1월 22일 가평회담 성무, 창양, 관제 협동회의 및 3대 통일선언서에서 3대 안철수외 3대 국인가노대로 유망하여 이북의 지지를 받아 있음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선언서 등) (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 2002.2, 63면)

- 3대 제의관 6.15공동선언 이행, 조국통일 완성선, 통일장애요인(반전 투쟁, 외국군대 철수, 주적론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등), 3대 호소란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6.15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 5월-8월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
기간으로 설정할 것을 말함.(북한 중앙방송, 2002. 1.23자 방송)

■ 조총련 산하 한청(재일한국청년동맹)과의 연대투쟁

■ 북한 청년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의 교신, 연대투쟁

III. 종합 평가

1. 이상의 한청(약청)의 강령·규약 및 주요 조직문건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첫째, 한청은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용하여 한국사회를 미제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현정권을 반민중 사대패국정권 등으로 매도하고 (체제부정성)

둘째, 한국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중 조직의 정치노선으로 북반의 제국주의적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이의 연장선에서 주민주권, 인민민주주의, 인민적외국관계, 민족보위안정전선 등 반제국주의적 노선을 주축으로 추진, 인민적통일 등 조국통일투쟁을 위한 투쟁노선으로 제정하여 이의 투쟁노선으로 진행하고, 이의 투쟁행위로는 대중투쟁, 대중항전(반미항전 등)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천북용공성과 폭력투쟁성)

셋째, 지향목표로 자주 민주 통일이 실현된 사회(즉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사회주의 지향성)

2. 이러한 주장은 결국 한청이 단순히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을 지지선전하는 차원을 벗어나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행하는 단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바, 한청은 민족해방(NL)계열(PDR파)의 친북좌익 청년운동단체라고 판단됨.

3. 따라서 한청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을 고부찬양,동조 선전하는 이적성을 표출하고 있는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3항, 5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2002. 3. 11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유 동 열



주민등록번호 : 700420 - 1048018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 조국통일위원장

「한청」중앙위원

주소 : 서울 은평구 신사2동 344-16호

전화 : 서울 종로구 광신동 344번지